

2012
October 19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Weekly Healthcare Industry Trends



포커스

신흥국 보건산업시장과 일본 기업의 진출 방안

정책동향

- [미국] 미국, '아스페르길루스' 오염주사 공포 확산
- [글로벌] 국경없는의사회, 특히 의약품 반대 DB 구축
- [아시아] 인도네시아, 메이저 제약업체 HIV 치료제 특허 무효 결정
- [중동] 아부다비, 첨단 체외수정센터 개관 ... 의료관광 증가 기대

산업동향

- [영국] 영 GSK, 임상시험 자료 공개 확대
- [미국] 미 퍼스트 워닝, 유방암 조기진단 브래지어 개발
- [글로벌] 프랑스 사노피, 미 코카콜라와 건강·미용 음료 제휴
- [중국] 중국 방향성 물질·에센스 시장 84억불 규모

신규보고서

- [글로벌] '18년 글로벌 진단영상기기 10대 업체
- [남미] 브라질 퍼스널케어 시장 현황과 전망

포커스

- **신홍국 보건산업시장과 일본 기업의 진출 방안** 1

정책동향

- [미국] 미국, ‘아스페르길루스’ 오염주사 대책 마련에 부산 5
- [미국] 롬니, “낙태 금지 법안 제정하지 않을 것” 5
- [미국] 아이다호, 2년 연속 의료업무 환경 최적인 주로 평가 6
- [글로벌] 국경없는의사회, 특허 의약품 반대 DB 구축 6
- [일본] 일본, iPS 의약품 개발 사업화 적극 지원 7
- [아시아] 인도네시아, 메이저 제약업체 HIV 치료제 특허 무효 결정 7
- [중동] 아부다비, 첨단 체외수정센터 개관...의료관광 증가 기대 8
- [아시아] 말레이시아, ‘13년 몽골 중심 중앙아 의료산업 진출 8

산업동향

- [일본] 일본, 영유아 ‘RS 바이러스’ 환자 급증 9
- [영국] 영 GSK, 임상시험 자료 공개 확대 9
- [글로벌] 메드이문, 항암 면역치료제 R&D 강화 10
- [EU]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신홍시장 현지 인력 1천명 채용 10
- [미국] 미 퍼스트 워닝, 유방암 조기진단 브래지어 개발 11
- [일본] 일 와코퓨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기기 발매 11
- [미국] 미 이그잭트, DNA 대장암 진단법 개발 12
- [EU] 덴마크 히비도브레병원, “HRT에 심혈관 질환 억제 효과” 12
- [미국] 수면무호흡증 치료, 고혈압 증상 개선 13
- [글로벌] 프랑스 사노피, 미 코카콜라와 건강·미용 음료 제휴 13
- [글로벌] 미 인터파폼스·영 버버리, 향수 제휴 관계 ‘13년 3월까지 연장 14
- [중국] 중국 방향성 물질·에센스 시장 84억불 규모 14

신규보고서

- [글로벌] ‘18년 글로벌 진단영상기기 10대 업체 15
- [남미] 브라질 퍼스널케어 시장 현황과 전망 16

포커스

신흥국 보건산업시장과 일본 기업의 진출 방안

최근 신흥국경제국에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한편 의료정책 강화, 의료기관 정비, 의약품·의료기기의 양적·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본 자료는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가 '12년 8월 발표한 '일본의 의료 발전 및 신흥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시사점(日本の医療の発展と新興国市場展開への示唆)'을 통해 신흥국 보건의료 현황과 향후 일본 기업들의 진출 방안을 고찰

□ 신흥경제국의 보건의료시장 현황

- (개요)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흥경제국에서 '충실한 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
 -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분배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영역
 - 선진국 보건의료 산업계가 신흥경제국 시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신흥국 자체적으로도 의료정책 강화, 의료기관 정비, 의약품·의료기기의 양적·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선진국이 신흥국 시장으로 진출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①의료기관 정비, ②중산층 대상 의료보험제도 창설·확대 ③의료종사자 양성, ④질병구조, ⑤의료서비스 표준화 및 독자 기술개발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
- (의료기관 정비)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주로 국가나 주정부가 부유층 및 특권층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핵심병원을 설립해왔으나, 최근 경제력 상승으로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병원이 점차 정비
 - 최근에는 암이나 순환기 계통의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과 첨단 장비를 갖춘 영상검진센터들이 설립되기 시작
 - 신흥국에 설립되는 민간 병원의 경우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다수

- **(중산층 대상 의료보험)** 많은 신흥국들이 의료보험 대상 확대에 적극적
 - 그동안 신흥국 대부분에서의 의료보험제도는 공무원 등 일부 특권층을 대상으로 했으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농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는 부재
 - 최근 신흥국 국가별 경제 성장 정도에 따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로 서서히 이행
 - 신흥국 의료보험제도가 확대되면서 의료비 지출 역시 경제성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성장

- **(의료종사자 양성)** 신흥국에서도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 양성이 큰 과제로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는宗主국 의료기술이 원천인 경우가 대부분
 - 최근에는 신흥국 주요 의과대학들이 선진국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이들이 귀국해 교육을 담당하는 순환구조를 구축
 - 이러한 유학생 가운데 현재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는 유학생이 가장 많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귀국 후 본국에서도 미국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진료 재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
 - 신흥국 중 많은 수의 국가들이 신설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현재의 핵심 의료 인력이 신설 의대로 이직해 세를 넓히면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연구에 나서면서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경쟁이 시작될 전망

- **(질병구조)** 신흥국의 유아 사망률이 높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흥국 대부분이 감염성 질병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상태
 - 이에 따라 혈액 검사, X선 검사, 항생물질·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전체 치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 증가로 뇌질환, 심장질환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며,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점도 특징
 - 최근 첨단장비 도입으로 암의 조기발견이 가능해지면서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에 암 전문병원이 설립되는 등 선진국에서는 5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질병구조 변화가 신흥국에서는 단기간에 진행

- (의료 표준화 및 독자기술 개발) 신흥국 대부분에서는 독자적 치료 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유학과 의사 및 학자들이 학회를 설립해 주로 미국식 진료 가이드라인을 적용
 - 이에 따라 신흥국 의료 현장에서는 미국식 진단 방법이나 의약품 사용 기준이 원용되고 있는 실정
 - 최근에는 신흥국에서도 의학, 생명공학, 의료정보기술 등이 연구되는 가운데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진흥이 계획되고 있어 각국의 독자적인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신흥국의 의료과제 및 향후 신흥국 시장 진출 방안

- (의료기능 동시 정비) 감염성 질환, 생활습관성 질환, 순환기·심장 질환 및 암치료에 필요한 복수의 의료기능을 동시에 정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료기관 증설도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한 협력체제 구축도 중요
 - 일본은 '75년을 전후로 지역의료계획을 책정하고 △지역의료 담당 진료소 (1차 의료기관), △수술·입원 치료를 담당하는 2차 의료기관, △첨단의료를 담당하는 3차 의료기관으로 계층화하고 계층간 환자를 소개하는 연계 구조를 마련
 - 신흥국에서 착실한 의료기관 계층화가 이루어지려면 임상검사, 영상진단, 백신 등의 기술협력과 함께 일본의 경험 및 개선 효과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
 - 일본의 경험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검사기기, 진단기기, 의약품 수출 판매가 가능하며, 의료기능 고도화를 계획 중인 신흥국 병원에는 진단 기술 및 수술 등에 관한 기술 협력을 통해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 기회를 확보
- (의료보험 대상 확대 및 의료비 억제) 의료보험 대상이 확대되면 의료비 지출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의료비 지출 억제 정책 도입으로 귀결
 - 일본은 과거 의료비 지출 증가를 경제성장 범위 내로 억제한다는 방침 하에 △의료보험제도 재편·통합, △입원진료의 포괄지불제, △고령자 의료·개호 보험제 도입 등이 효과를 발휘

- 일본의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본-신흥국 간 정부 및 연구진의 협력이 요구되며, 의료비 억제를 위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일본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일본 기업들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
- **(인력 양성 및 독자 기술 발전)** 신흥국은 의사 외에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력 양성과 첨단 치료기술이 필요한 약제 사용법 및 치료기기 취급 방법 등 임상기술 습득이 필요
 - 일본 유명 의대가 신흥국 의대와 제휴해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공동 컨퍼런스와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일본 기술을 이전
 - 이를 통해 신흥국의 인재육성과 독자적 치료기술 개발에 기여하는 한편 현지에서 진료 가이드라인 책정·표준화·다양화에 공헌
 - 일본이 신흥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및 각종 의료 서비스 기업의 협력이 불가피
 - 특히, 일본이 새로운 진료 가이드라인 책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일본 보건의료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가 가능
- **(보건의료산업 진흥)** 신흥국 대부분이 차세대 산업으로 보건의료산업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현재 신흥국의 기술력으로는 신약이나 획기적인 의료기기나 진료재료의 제조는 불가능하며 이미 유사품도 존재
 - 일본의 보건의료산업도 초기에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의료기기나 진료재료를 수입하는 형식이었으나, 정부 규제 이후 기술 협력 및 라이선스 방식으로 선회해 국내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독자적 제품 제조 역량을 확보
 - 지금은 일본 기업들이 신흥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발전 과정을 적용할 시기로 업무 제휴나 자본 참여 등을 통해 기업 수익을 높이는 한편, 단순한 수출만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획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

정책동향

미국, ‘아스페르길루스’ 오염주사 대책 마련에 부산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아스페르길루스(aspergillosis)’에 오염된 스테로이드 주사에 맞은 뒤 뇌수막염에 걸려 사망한 환자가 인디애나주에서 추가로 발생해 13일 현재 사망자가 모두 15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
 - 뇌수막염 발병자는 테네시, 미시간, 버지니아, 인디애나, 플로리다, 메릴랜드,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오하이오, 일리노이, 아이다호, 텍사스 등 13개주에서 198명
 - 그러나 CDC는 곰팡이의 일종인 아스페르길루스에 의한 뇌수막염은 전염되지 않는다고 공포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산
 - 한편 매사추세츠주 보건국 자료에 의하면 지난 7~9월 1만7천676명의 아스페르길루스 오염 스테로이드 주사제가 23개주 76개 병원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 [ABC News, 2012.10.13]

롬니, “낙태 금지 법안 제정하지 않을 것”

-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트 롬니 미국 공화당 후보는 대표적 경합주인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에서 다소 완화된 모습을 피력
 - 낙태 문제는 여성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보이는 사안 중 하나로, 이번 발언은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략적 포석
 - * 모르몬 교도인 롬니는 지금까지 강경한 낙태 반대론을 견지해 왔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과 여성 인권단체들은 공화당과 롬니가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고 비난
 - 이와 함께 롬니는 오바마 대통령이 '09년 1월 폐기한,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비영리단체가 해외에서 낙태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안을 부활시키겠다고 오바마와의 차별성을 부각 [Newsday, 2012.10.10]

아이다호, 2년 연속 의료업무 환경 최적인 주로 평가

- 미국 의료시장 조사업체인 피지션스 프랙티스(Physicians Practice)는 미국에서 의료진들이 의료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게 환경을 구비한 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아이다호를 선정
 - 선정 기준은 물가수준, 세금부담, 의료과실 소송, 의사 1인당 업무량 등 의료업무에 실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로, 아이다호는 이들 지표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
 - 아이다호주 뒤는 앨라배마, 텍사스,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순이며, 정치와 경제 및 관광 중심지인 뉴욕과 워싱턴DC 및 하와이는 의료진에 대한 소송이 많고 세금도 높아 하위권에 위치
 - 피지션스 프랙티스는 지난 '03년부터 매년 미국 50개주와 워싱턴DC를 대상으로 ‘최적 의료업무 주(Best States to Practice)’ 조사를 실시, 순위를 매겨 발표 [UPI, 2012.10.15]

국경없는의사회, 특허 의약품 반대 DB 구축

- 국제 비정부기구인 국경없는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s : MSF)가 특허 의약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특허 의약품 반대 DB(Patent Opposition Database)’를 구축
 - 특허 의약품 반대 DB는 고가 의약품 독점 특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브라질, 태국 등 개도국 환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제네릭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을 보유
 - * 개도국 환자들은 메이저 제약업체들의 특허 독점으로 인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이 어려운 상황
 - 현재 특허 반대 DB에는 주요 의약품 특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관련 문서 45건과 보조 문서 2백여 건이 수록
 - MSF는 특허 반대 DB가 개도국 시민단체들이 메이저 제약업체들의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Pharma Times, 2012.10.09]

일본, iPS 의약품 개발 사업화 적극 지원

- 일본 정부는 야마나카 신야 교토대학 교수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을 계기로 기업들이 유도만능줄기(iPS) 세포를 이용해 의약품 개발 등 부문에서 실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이와 관련, iPS 아카데미아 재팬(iPS Academia Japan)은 향후 3년 동안 1백여 iPS 관련 특허를 바이오벤처 등이 사용하도록 허용, 일본 기업들이 소송을 우려하지 않고 사업화 연구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 iPS 아카데미아 재팬은 교토 소재 iPS 세포 특허관리 업체
 - 한편 질병이나 사고로 상실된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재생의료의 임상시험에 적합한 iPS세포 제작과 관련된 연구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본이 다른 국가보다 한 걸음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

[日本經濟新聞, 2012.10.13]

인도네시아, 메이저 제약업체 HIV 치료제 특허 무효 결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규정된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조항을 적용, 메이저 제약업체들의 HIV 치료제 7개와 간염 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무효화하기로 결정
 - 특허가 무효화된 제품은 GSK의 ‘자이아젠(Ziagen)’, 머크의 ‘수스티바(Sustiva)’, 애보트 러버로토리스의 ‘카레트라(Kaletra)’, 길리어드 사이언시스의 ‘트루바다(Truvada)’와 ‘아트립플라(Atripla)’ 등
 - *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특허 보유 업체의 동의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제도
 - 이번 조치는 저가 제네릭 제품의 출시를 허용함으로써 브랜드 제품 매출이 감소되는 반면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부담은 줄어들 전망
 - 한편 아시아 다른 국가도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따를 수 있어 브랜드 제약사들은 빠른 성장을 기대하는 아시아에서 지식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심각한 위협에 노출

[Fierce Pharma, 2012.10.11]

아부다비, 첨단 체외수정센터 개관 ... 의료관광 증가 기대

- 아부다비 부르질병원(Burjeel Hospital)에 최첨단 체외수정센터가 향후 수주일 내 개관됨에 따라 역내 불임 문제가 크게 완화되고 아부다비로의 의료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체외수정센터는 부르질병원과 벨기에 브뤼셀의대 재생의학연구소(University Hospital Brussels-Centre for Reproductive Medicine : UHB-CRM)가 공동 설립했으며 휴먼 파테미(Human Fatemi) UHB-CRM 이사가 대표로 부임
 - 파테미 대표는 **중동에서는 생활양식이 유사한 가운데 흡연자가 많아 불임 문제가 심각하다**며 훈련된 전문 인력을 보유한 체외수정센터가 개관되면 인근 국가에서 불임 부부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전망
 - * 두바이보건청(Dubai Health Authority : DHA) 자료에 의하면 현재 UAE에는 약 1만명의 여성이 불임인 것으로 추정
 - * UHB-CRM는 지금까지 1만5천 명 이상의 불임환자를 성공적으로 수술
 - 체외수정센터는 난자와 정자가 매우 건강한 배아를 만들 수 있도록 적절한 기압과 온도와 인큐베이터 등 임상환경을 구비했으며, 의료진은 ‘정자직접주입술(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 ICSI)’ 등 방식을 통해 불임 수술을 시행할 예정 [Gulf Today, 2012.10.10]

말레이시아, '13년 몽골 중심 중앙아 의료산업 진출

- 신흥시장 의료산업 진출을 탐색 중인 말레이시아 정부가 '13년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 진출에 주력할 계획
 - 빈센트 구기(Vincent Googi) 말레이시아헬스케어관광위원회(Malaysia Healthcare Travel Council : MTC) 마케팅·프로모션 매니저는 말레이시아가 '12년에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의료산업 진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13년에는 중앙아 특히 몽골 의료산업 진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소개
 - 한편 몽골에는 현재 아시아 대형 병원들의 분원을 설립해 의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BERNAMA, 2012.10.12]

산업동향

일본, 영유아 'RS 바이러스' 환자 급증

- 일본에서 폐렴을 유발하는 '호흡기세포융합(respiratory syncytial : RS) 바이러스'에 감염된 영유아 환자가 급증
 -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에 의하면 지난 1~7일 전국 약 3천여 소아 의료기관에서 RS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된 영유아 환자는 전년 동기보다 2.5배 많은 5천7명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된 '03년 이후 최악
 - * 지역별로는 도쿄도(548명), 후쿠오카현(476명), 오사카부(362명), 사이타마현(220명) 등이며, RS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자 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우려
 - RS 바이러스 증상은 발열과 기침 등이나 감염 시 폐렴이나 뇌염을 유발할 가능성도 상존 [NHK, 2012.10.16]

영 GSK, 임상시험 자료 공개 확대

-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07년 이후 및 '13년에 시작하는 모든 임상시험 자료에 대해 공개를 확대하기로 결정
 - GSK는 독립전문가패널을 구성해 외부 연구자들의 질의사항을 검토한 뒤 타당성이 인정되면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자료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방침
 - 이와 함께 연구의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상시험 결과를 학술저널에 공개, 외부 연구자들의 새로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
 - 그동안 전문가들은 의약품의 위험과 효능에 대한 정보교류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임상시험 결과 공개를 주요 제약업체들에 요구했으나, 광범위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나선 곳은 GSK가 처음
 -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비밀유지 의혹을 받고 있는 GSK가 사업모델을 보다 공개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
 - *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에서 불법행위로 30억불 벌금을 부과받은 이후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도 숨어있다고 지적 [Telegraph, 2012.10.12]

메드이문, 항암 면역치료제 R&D 강화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의 생물약 사업부인 메드이문(MedImmune)이 미국암연구소(Cancer Research Institute) 및 루드윅암연구소(Ludwig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와 공동으로 항암 면역치료제 R&D 제휴를 체결
 - 메드이문은 이들 미국 연구소와 신체의 면역 반응을 증강시키는 항체를 병용하는 시험으로 △CTLA-4 항체 트레멜리무맙(tremelimumab) △OX40 수용체 작용항체(OX40 receptor agonist antibody) △B7-H1 차단항체(B7-H1 blocking antibody)를 연구할 계획 [Pharma Times, 2012.10.11]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신흥시장 현지 인력 1천명 채용

- 덴마크 제약업체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가 신흥시장에서 당뇨병 치료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1천명의 현지 인력을 신규 채용하기로 결정
 - 사업 확대가 추진되는 지역은 베트남을 비롯해 콜롬비아· 이집트·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며, 노보노디스크는 특히 베트남이 제 2의 중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들 신흥시장에서는 △수명연장 △소득증가 △생활습관 변화 △도시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비만 및 당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당뇨병 치료제 수요 증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
 - * 이들 지역의 당뇨병 환자 수는 2억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1/4만이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
 - 현재 노보노디스크는 이들 신흥시장에 이동 클리닉을 통해 당뇨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연간 1만명의 현지 의사 교육을 실시할 계획
 - 노보노디스크는 전 세계 136개국에 진출해 전체 인력의 10%인 3천4백명을 신흥시장에서 고용하고 있으며, '12년 상반기 신흥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Bloomberg, 2012.10.03]

미 퍼스트 워닝, 유방암 조기진단 브래지어 개발

○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 퍼스트 워닝 시스템스(First Warning Systems)가 유방암 조기진단이 가능한 브래지어 ‘유방 조직 검사 브라(Breast Tissue Screening Bra : BTSB)’를 개발

- BTSB는 부착된 16개의 체온센서가 심부조직 체온 변화를 감지한 뒤 패턴 인식(pattern recognition) 소프트웨어를 통해 유방 조직 이상을 검사



- BTSB는 65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3번의 임상 시험에서 민감도(sensitivity) 92.1%, 특수성(specificity) 94.7%, 정확성(accuracy) 91.1% 등 유방암을 발견하는데 높은 성공률을 기록

- 퍼스트 워닝은 BTSB를 '13년 유럽, '14년에 미국에 시판할 계획이며, 가격은 25불 선이 될 것으로 예상

- 한편 미국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 : ACS)에 의하면 지난 '11년 미국에서 새로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23만480명이며, 유방암으로 사망한 환자는 3만9천520명으로 집계 [CBS News, 2012.10.15]

일 와코퓨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기기 발매

○ 일본 화학업체인 와코퓨어케미컬인더스트리스(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和光純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진단기기 ‘이무노드럽 인플루엔자 A·B(イムノトラップ インフルエンザA・B)’ 발매를 개시

- 이무노드럽은 비강 흡입액의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검출과 바이러스 감염 진단의 보조기기이며, 1박스는 10회 진단분으로 구성



- 이무노드럽은 양성과 음성 판정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 시간이 60초로 매우 짧아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및 이에 따른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보유

[믹스온라인, 2012.10.16]

미 이그젝트, DNA 대장암 진단법 개발

- 미국의 생명과학업체 이그젝트 사이언시스(Exact Sciences)는 DNA로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을 개발했다고 미국암연구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 AACR) 국제암예방학술회의에서 발표
 - 이 검사법은 첫째, 두 특정 유전자의 메틸화 여부를 검사하고 둘째, K-ras 유전자의 DNA 변이를 확인하며 셋째, 분변잠혈(blood in the stool)을 찾아낸 뒤 이 3가지 결과를 종합해 대장암 여부를 최종 판단
 - * 유전자의 메틸화란 DNA 염기서열을 메틸기로 치환시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과정이고, K-ras 유전자의 DNA가 변이될 경우 종양 성장이 촉진될 수 있으며, 분변잠혈은 대장암의 대표적인 신호
 - 이그젝트는 내시경 검사를 받은/받으 사람, 대장암 또는 대장암 전단계 병변이 확인된 환자 1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대장암 진단과 대장암 전단계 병변 진단 정확도가 각각 98%와 57~83%로 나타났다고 설명
 - 이 DNA 검사법은 검사 준비와 절차가 복잡하고 신체에 고통스러운 현행 내시경 검사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 [US News and World Report, 2012.10.16]

덴마크 히비도브레병원, “HRT에 심혈관 질환 억제 효과”

- 덴마크 히비도브레병원(hvidovre hospital) 연구팀은 호르몬보충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 HRT)이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영국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을 통해 발표
 - 연구팀은 45~58세의 건강한 백인여성 1천6명(HRT 치료제 복용군 504명, 비복용군 502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
 - * 동 기간 HRT 복용군에서는 31명이 사망한 가운데 심혈관 질환 사망자가 16명으로 나타난 반면, 비복용군에서는 각각 59명과 33명으로 확인
 - * 또한 이후 7년간의 추가 추적 조사에서도 HRT 복용군이 비복용군보다 심혈관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판명
 - 이와 함께 자궁적출술을 받은 여성과 조기에 HRT 치료제를 복용한 여성은 사망률과 유방암 발병률이 감소한 것으로도 확인 [Forbes, 2012.10.10]

수면무호흡증 치료, 고혈압 증상 개선

- 미 수면의학회(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 AASM) 연구팀은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할 경우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수면의학회연구지(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를 통해 발표
 - 연구팀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과 고혈압 혹은 제2형 당뇨병이 있는 221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기도 양압(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 CPAP)’ 치료를 실시
 - * CPAP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기도를 약한 공기압으로 계속 열어두는 치료법
 - CPAP 치료 시작 3~6개월 후 이들의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이 모두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9~12개월에 실시된 재검사 시에도 동일한 효과가 확인
 - 연구팀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고혈압이 있는 남성들에게 CPAP가 수면 장애 뿐 아니라, 고혈압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 [Medical Xpress, 2012.10.13]

프랑스 사노피, 미 코카콜라와 건강·미용 음료 제휴

- 프랑스 사노피와 미국 코카콜라는 ‘뷰티픽 오에노비올(Beautific Oenobiol)’ 브랜드로 건강·미용 음료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 이번 제휴는 양사 사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분은 50대 50
 - 양사는 모발·손톱·피부를 강화하고, 체중을 감량하며, 신체 활력을 증진시키는 영양 첨가물이 함유된 4종의 음료수를 개발할 계획
 - 양사는 건강·미용 음료를 이번 가을부터 프랑스 내 일부 약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뒤 유럽 각국으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
 - 한편 사노피는 경기침체 여파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난 9월 프랑스 내 인력 9백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
 - * 오에노비올은 탈모와 노화를 방지하는 영양·건강·뷰티 보조제를 판매하는 프랑스 업체로, 사노피가 지난 '09년에 인수 [Wall Street Journal, 2012.10.16]

미 인터파퐁스·영 버버리, 향수 제휴 관계 '13년 3월까지 연장

- 미국의 화장품 업체 인터파퐁스(Inter Parfums)와 영국의 명품 브랜드 업체 버버리(Burberry)가 향수 부문 라이선싱 제휴 종결 시점을 당초 예정된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3월31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
 - 이에 따라 인터파퐁스는 버버리 브랜드의 향수 사업을 '13년 3월말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제휴 관계 종결에 따른 금전적 마무리 작업은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끝낼 계획
 - 이번 한시적 연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버버리의 향수·뷰티 사업 부문이 업무를 원활하게 인수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
 - 양사는 지난 '04년 10월 향수 부문의 라이선싱 제휴 관계를 체결한 뒤 제휴 종결 시범을 '11년 12월31일에서 '12년 12월31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예정대로 제휴 관계를 중단한다고 발표

[CosmeticsDesign-USA, 2012.10.11]

중국 방향성 물질·에센스 시장 84억불 규모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미국의 IBIS월드는 올해 중국 내 방향성 물질(Fragrance)과 에센스(Essence) 매출이 전년 대비 9.5% 증가하면서 84억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IBIS월드는 중국 방향성 물질·에센스 제조업체가 화장품 업계는 물론, 식음료와 담배 업계에서 주문이 크게 증가해 최근 5년간 연평균 14.5%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10%에 가까운 증가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스위스 피르메니히 아로매텍스(Firmenich Aromatics), 독일 짐리제(Symrise) 등 글로벌 업체들이 중국 진출을 확대하면서 중국이 방향성 물질·에센스 제조 국제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견인했다고 진단
 - 중국 방향성 물질·에센스 시장은 △방대한 내수 △저렴한 노동력 △풍부한 식물자원을 자랑하나, 글로벌 시장에서 주로 고농도 제품이 생산되는 반면 중국에서는 저농도 제품이 생산
 - * 그러나 중국 소비자들이 건강과 웰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에는 고농도 제품이 주로 생산될 것으로 전망

[Melodika.net, 2012.10.09]

신규보고서

'18년 글로벌 진단영상기기 10대 업체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영국 이밸류에이트파마(Evaluate Pharma)는 '12년 10월 글로벌 진단영상기기 10대 업체를 전망한 보고서 ‘의료기기 및 진단산업에 관한 컨센서스(A Consensus View of the Medical Device and Diagnostic Industry)’를 발표
- 보고서는 지난 '11년부터 오는 '18년까지 글로벌 진단영상기기 시장이 연평균 3.5% 성장해 '18년에는 456억불 규모에 이르는 가운데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일 지멘스(Siemens)와 미국 GE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 지멘스는 '11~'18년 매출이 연평균 2% 증가하면서 '18년 119억불의 매출과 26.2%의 시장점유율로 1위 업체의 명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GE는 동기간 매출이 연평균 5% 증가하면서 '18년 115억불의 매출과 25.3%의 시장점유율로 지멘스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예상
 - 이와 함께 보고서는 10대 진단영상기기 업체 매출과 성장률, 시장점유율과 순위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전망

<글로벌 진단영상기기 10대 업체>

순위	업체	매출 (백만불)		연평균 성장률(%)	시장점유율(%)		순위 변화 ('11~'18년)
		'11년	'18년		'11년	'18년	
1	지멘스	10,242	11,928	+2	28.6	26.2	-
2	GE	8,330	11,532	+5	23.3	25.3	-
3	필립스	4,682	5,962	+4	13.1	13.1	-
4	도시바	4,445	5,852	+4	12.4	12.8	-
5	케어스트림 헬스	1,583	2,031	+4	4.3	4.5	-
6	히타치 메디컬	1,458	1,848	+3	4.1	4.1	-
7	코니카 미놀타	962	1,157	+3	2.6	2.5	+1
8	아그파-게바에르트	999	918	-1	2.8	2.0	-1
9	시마즈	641	853	+4	1.8	1.9	-
10	베리안 메디컬 시스템스	469	746	+7	1.3	1.6	+1
10대 업체		33,730	42,828	+3	94.2	94.0	
기타		2,089	2,722	+4	5.8	6.0	
산업 전체		35,819	45,550	+3.5	100.0	100.0	

브라질 퍼스널케어 시장 현황과 전망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프로스트앤설리번(Frost & Sullivan)은 '12년 9월에 발표한 '퍼스널케어 케미컬 시장 분석(Analysis of the Personal Care Chemicals Market)' 보고서에서 브라질 퍼스널케어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
 - 보고서는 브라질 퍼스널케어 시장이 지난 15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
- '11년 브라질 퍼스널케어 시장 규모는 10억2천만불로 10억불을 돌파한 데 이어 오는 '18년에는 16억2천만불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 같은 성장세는 구매력이 강화된 중산층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데서 비롯
 - * 지난 '09~'11년 1천만명 정도가 새로 중산층에 편입된 가운데, '10년의 경우 전체 퍼스널케어 시장 매출의 46%가 새로 편입된 중산층에 의해 창출
 - 중산층 인구의 급증과 함께 오는 '20년 노인 수는 현재보다 최대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격히 진행되는 인구구조적 변화도 향노화 제품 등 부문에서 퍼스널케어 시장의 성장을 견인
- 향후 브라질 소비자들 사이에는 천연 원료 및 친환경 화학물질을 함유한 퍼스널케어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글로벌 식품·바이오연료 시장에서 원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재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향후 퍼스널케어 완제품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
 - 이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도 퍼스널케어 완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평가되지만, 브라질 퍼스널케어 시장은 당분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한편 프로스트앤설리번은 '아시아태평양 퍼스널케어 활성성분(Active Ingredients) 시장 전략적 분석' 보고서에서 브라질을 포함한 아태 지역의 퍼스널케어 활성성분 시장 규모가 '11년 1억1천660만불에서 '17년 1억7천640만불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